

해외석유정보

본 란은 해외석유산업에 대한 동향과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석유협회에서 발간중인 석유정보다이제스트 내용을 발췌하여 실은 것이다. <편집자 주>

BP-Amoco의 합병첫해 영업실적

“1999년은 BP-Amoco에 있어 놀라운 성공을 거둔 해였다. 두개의 거대기업이 통합하여 조업·업무·인원을 통합한 결과, 합병에 의한 재정이익을 예정보다 훨씬 앞서 달성할 수 있었다”. BP-Amoco 그룹의 최고책임자 존 브라운 경은 1999년 연차보고서 서두에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이 성과를 배경으로 유럽의 BP/Mobil합작사업에 대한 지분을 Exxon-Mobil로부터 매입, Arco합병에도 나서는 등 합병 첫해부터 전략적 전개는 의욕적으로 전개되었다. 원유가격은 99년 상반기 6개월 평균이 12.5\$/B이었으나, 하반기 6개월에는 21\$로 상승해 정제·화학부문 마진은 축소되었지만, 상류부문 이익이 크게 늘어나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 일련의 메가머저를 통하여 수퍼메이저는 경쟁기업에 대하여 수익력 격차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최근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BP-Amoco의 매출액은 835억6,600만\$, 전년의 683억400만\$보다 22.3%나 증가했다. 사업분야별로는 탐광·생산부문이 14.4% 증가한 139억4,900만\$(122억1,600만\$), 정제·판매부문은 29.5% 증가한 603억6,900만\$(466억2,500만\$), 화학부문은 2.8% 감소한 90억5,000만\$(93억1,200만\$), 기타사업부문이 31.2% 증가한 1억9,800만\$(1억5,100만\$)이다. 그룹 매출액에 합작사업 매출액 지분 176억

1,400만\$(154억2,800만\$)를 더하면, 그룹의 총매출액은 20.8% 증가한 1,011억8,000만\$(837억3,200만\$)에 이른다.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배당이나 이자 등 금융수지를 포함하지 않은 이익(total replacement cost operating profit)은 88억9,400만\$(65억2,100만\$)로 전년대비 36.4% 증가했다. 사업분야별로는 탐광·생산부문이 실제로 122.7% 증가한 71억9,400만\$(32억3,100만\$), 정제·판매부문이 28.2% 감소한 18억4,000만\$(25억6,400만\$), 화학부문이 37.6% 감소한 6억8,600만\$(11억\$), 기타사업부문이 마이너스 8억2,600만\$(마이너스 3억7,400만\$)이다. 탐광·생산부문에서는 이익이 2배 이상이나 늘어난 데 비해, 정제·판매부문에서는 매출액이 급증했는데도 대폭적인 이익감소에 그치고 있다. 이것은 하류부문의 영업환경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화학부문의 이익도 크게 줄어들고 기타사업부문의 적자는 작년보다 크게 늘어났다. 미래에 대비하여 태양광발전 등 신기술이나 환경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결과이다. 결국, 99년의 영업실적을 지탱한 것은 상류부문의 호조이며 그 이외의 부문은 부진했다. 1년간의 원유가격 상승 덕택에 세후이익은 56.7% 증가한 51억4,600만\$(32억8,300만\$)로 크게 늘었다.

인원은 99년 12월31일 현재 80,400명이다. 1년전의 96,650명보다 16,250명이나 줄었다. 탐광·생산부문이

5,500명 감소한 13,300명(18,800명), 정제·판매부문이 6,850명 감소한 45,250명(52,100명), 화학부문이 4,350명 감소한 18,700명(23,050명), 기타사업부문이 450명증가한 3,150명(2,700명)이다. 기타사업부문 이외 부문 인원이 현저히 감소했다.

99년에는 BP-Amoco의 원유생산량은 2,061천 b/d(작년 2,049천b/d), 천연가스 생산량은 6,067백만 cf/d(5,808백만cf/d), 원유·제품판매량은 9,986천 b/d(9,390천b/d)로 전년대비 약간 늘었지만, 정유공장 처리량은 2,541천b/d(2,711천b/d)로 떨어졌다. 99년 12월말 현재 순수 확인매장량은 원유65억3,500만배럴(73억400만배럴), 천연가스 33조8,020억cf(31조10억 cf)이다. 이 외에 제휴회사의 보유매장량이 원유10억 3,700만배럴(11억2,800만배럴), 천연가스 1조7,240억cf(1조7,660억cf)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Oil Report, 2000. 4. 3〉

일본 제너럴석유, 東燃 합병

일본의 제너럴석유와 東燃(토펜)은 2월22일, 경제단체 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7월 1일을 기해 합병한다고 발표했다.

새 회사명은「東燃제너럴석유」이다. 존속회사는 제너럴석유이고, 합병비율은 제너럴석유 1에 대해 東燃이 2.7이지만, 합병까지 제너럴석유가 주식병합에 의한 감자를 실시해, 양사 1대1의 대등합병이 된다. 대표이사 회장은 오카이 마사요시(岡井政義) 제너럴석유 사장이 맡고, 대표이사 사장은 타마호리 타메히코(玉堀爲彦) 東燃 사장이 맡는다.

본사는 동경에 두고, 자본금은 351억2,310만엔이다. 양사는 2월22일 개최한 각사, 이사회에서 합병을 결정하고 양사간 합병계약서에 조인했다. 3월30일에 합병계약서 승인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7월 1일 합병할 예정이다.

이번 합병은 양사의 출자회사인 Exxon과 Mobil이 작년 11월말에 합병하여 「Exxon-Mobil Corporation」으로 발족한 데 따른 것이다.

석유정제·제조원인 제너럴석유는 구 Exxon이 48.6%, Exxon계열인 옛소석유가 1.5%를 출자하고 있고, 석유정제전문회사인 東燃에는 구 Exxon과 구 Mobil이 각 25%씩 출자하고 있었다.

이번 제너럴·東燃의 합병결정에 대해 제너럴석유의 오카이 마사요시(岡井政義)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양사는 Exxon-Mobil 발족에 따라 공통된 경영적 배경을 갖게 되었다. 한편, 일본 석유산업은 경쟁격화에 따라, 마진 축소나 수요감소로 인해 현저히 수익이 악화되는 등,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작년 이래 대형석유회사간 합병이나 기업제휴가 잇따라 본격적인 재편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발판으로 우리들은 각사가 갖고 있는 경영자원을 결집하여 더 한층의 경영 효율화와 수익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통인식을 갖고 이번 합병을 결정했다. 이번 합병은 경영기반 강화와 함께 여러 분야에서 효율향상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이고, 우리들은 합병효과의 최대 효과를 도모함으로써 모든 주주의 이익에 공헌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번 합병에 의해 탄생하는 새로운 회사는 다른 Exxon-Mobil 자회사와 협력하여 더 한층 효율화를 꾀하고, 계속적으로 일본의 석유·에너지의 안정공급의 사명을 다 해갔으면 한다.」

합병은 제너럴석유를 존속회사로 하고, 東燃은 해산한다. 합병비율은 닛코(日興)Solomon Smith 바니 증권회사의 평가를 바탕으로 양사 이사회가 제너럴석유 1대 東燃 2.7로 결정했다(99년 12월31일 현재 양사 주식수를 기초로 산출).

이에 따라, 제너럴석유는 합병까지 액면 보통주식(1주의 액면금액 50엔) 2.7주에 대하여 액면 보통주식(1주의 액면금액 50엔) 1주의 비율로 무상병합하여 감자한다(190억 3,141만6,900엔에서 119억8,274만4,000엔 감소해 70억4,867만2,900엔이 됨). 따라서, 주식병합후 합병비율은 제너럴석유 1대 東燃 1이 된다. 그 결과, 합병시 합병비율은 감자후의 제너럴석유의 주식수를 기준으로, 東燃 주식 1주(액면금액50엔)에 대하여 제너럴석유 주식 1주(50엔)을 할당한다. 「東燃제너럴석유」의 원유처리능력은 다음과 같다.

(단위:b/d)

| 회 사 | 공 장 | 정제능력 |
|-----------|------|-----------|
| 東 燃 | 카와사끼 | 255,000 |
| | 와카야마 | 166,000 |
| 제너럴석유 | 사카이 | 156,000 |
| 난세(南西)석유 | 니시하라 | 100,000 |
| 쿄꾸또(極東)석유 | 치바 | 160,000 |
| 키그너스석유 | 카와사끼 | 80,000 |
| | | 총 917,000 |

이것은 일본 전체 처리능력의 17.1%에 해당하는데, 日石三菱(닛세끼미쓰비시)그룹의 1,348,000 b/d(25.2%) 다음 가는 규모이고, 出光興産(이데미쓰코산)그룹(91만 b/d, 17%)과 거의 비슷한 규모이다.

그룹조직 효율화

제너럴석유와 東燃의 합병은 Exxon-Mobil의 일본내 계열그룹 각사가 석유기업간 경쟁격화속에서 경쟁력을 강화하여 사업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협력관계 자체에 관해서 공동으로 검토해온 것에 대한 결과이다. 거기에는 사업조직 간소화와 효율화가 필수요소라는 데 합의했다.

그에 따라, 이미 Esso석유, Mobil석유, General석유 3사는 6월1일부터 Esso석유가 전액 출자해 새롭게 설립하는 마케팅전문회사「Exxon-Mobil Marketing Service」에 각사의 연료유, 윤활유 등의 판매업무를 위임하기로 했다.

또한, 이들 3사에 東燃까지 가세하게 되어 Esso석유가 신설한 서비스 회사「Exxon-Mobil Business Service」에 각사의 관리총괄부문(경리, 금융, 정보시스템, 홍보 등)의 업무를 위임하기로 했다.

게다가, 4사는 물류, 공급, 정제계획, logistic 관련 계획 등의 기능을 보완하는 서비스 상호제공계약(MSA)을 체결했다.

위와 같은 그룹전체의 간소화·효율화, 그리고 이들의 상승효과나 규모의 메리트에 따라 큰 폭의 코스트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합병회사 개요

| 상 호 | 제너럴석유(株) (합병회사) | 東燃(株) (피합병회사) | 東燃제너럴석유(株) |
|------|--|--|-----------------|
| 설립연월 | 1947. 7 | 1939. 8 | 2000. 7. 1 |
| 자본금 | 19,031,416천엔 | 32,327,328천엔 | 35,123,100,900엔 |
| 총자산 | 318,352백만엔 | 402,191백만엔 | 829,000백만엔 |
| 결산 | 12월 31일 | 12월 31일 | 12월 31일 |
| 종업원수 | 1,142명 | 1,612명 | |
| 주주구성 | Esso Eastern Incorp. 48.57% 사쿠라은행 3.78% 미쓰이신탁은행 2.81% 미쓰이회생회계보험 2.30% Esso석유 1.53% | Esso Eastern Incorp. 25.0% Mobil Petroleum Co. Incorp. 25.0% 후지은행 3.37% 日本興業銀行 3.37% 아스타화재해상보험 3.08% 동경해상화재보험 3.08% | |

최근 영업실적과 합병후 영업실적 전망

| | 제너럴석유 | | | 東 燃 | | | 東燃제너럴석유 | |
|------|---------|---------|---------|---------|---------|---------|----------|-----------|
| | 98. 3 | 98. 12* | 99. 12 | 97. 12 | 98. 12 | 99. 12 | 2000. 12 | 2001. 12 |
| 매출액 | 555,041 | 360,756 | 515,000 | 558,400 | 431,399 | 489,888 | 822,500 | 1,128,400 |
| 경상이익 | 4,097 | △4,764 | 15,000 | 14,146 | △5,286 | 36,224 | 29,000 | 54,500 |
| 당기이익 | 4,543 | △4,956 | △19,400 | 10,136 | 1,371 | 37,721 | 14,000 | 35,500 |

(*) 98년 12월은 결산변경에 의해 98년 4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의 9개월간임.

<석유문화, 2000. 3>

99년 일본 셀프주유소 19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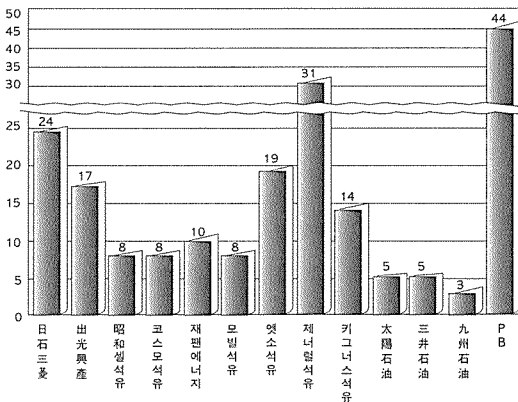
99회계연도말 기준 일본의 셀프주유소수는 190개로 확인되었다. 전년 4월에 1개가 폐쇄되었다가, 최근 1년간 105개 증가했다. 4월 들어서도 6개가 오픈했는데, 4월 15일 현재 196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산방식에 선불카드를 이용한 형태라든가 옛석유계열 등에서 볼 수 있는 커미션에이전트(CA)방식에 따른 전제가 눈에 띈다.

99년도의 셀프주유소수는 190개로 확인되었는데, 등유 판매시에만 셀프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주유소까지 포함하면 200개를 돌파한 셈이다. 원매회사별 셀프주유소수(2000년 3월말)는 제너럴석유 계열이 30개로 가장 많고, 계열 특약점인 小田原興産이 제너럴석유 마크를 내리고, Private Brand(PB)화했는데, 1년간 23개가 늘었다. 다음으로 日石三菱계열 24개, 옛소석유계열 19개, 出光興産계열 16개, 키그너스석유계열 14개, JOMO계열 10개순이다.

코스모석유계열과 모빌석유계열은 8개, 昭和셀석유계열 7개, 三井석유계열 5개, 태양석유계열 4개, 九州석유계열 2개, PB의 셀프주유소는 원매회사 계열로부터 분리된 주유소를 포함하면 43개로 증가한 셈이다. 전체 196개 셀프주유소중 118개가 island정산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약 20개는 선불카드 이용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99회계연도 후반부터 이 형태가 늘고 있다.

〈연료유지신문, 2000. 4. 18〉

원매회사별셀프 주유소



일본 소방청, 주유소의 기술기준 완화

주유소에 적용되는 기술상의 기준 전망은 98년 3월에 각의 결정된 '규제완화추진 3개년계획'에 담겨져 있던 19개 항목중 하나이다. 이 내용은 2000년에 결론을 내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 달 말에 보고서가 마무리됨으로서 내년 빠

른 시기에 政省승을 개정할 전망이다. 이번 기술기준 개정에서 검토된 것은 ①지하전용탱크용량제한, ②세차기 설치 위치, ③주유소 폐점시 영업하는 병설편의점 등 병설점포의 안전대책, ④주유소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범위 등 4개 항목.

지금까지의 소방청 검토에 따르면, 위험물 규제에 관한 政省(제17조)에서 탱크 1기당 용량 30kℓ(폐유탱크는 10kℓ)로 정하고 있는 지하전용탱크는 탱크를 탱크실에 설치하는 경우와 2중탱크의 경우는 용량 제한은 필요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주유소의 지하탱크 누유사고는 93~97까지 16건이 확인되고 있는데, 1건을 제외하고 모두 2중 구조가 아닌 탱크를 직접 매설한 경우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탱크실에 설치된 탱크는 부지 바깥으로 위험물이 누설된 사례가 없고, 탱크실 내에서 유출을 방지하고 있는 점이나 2중탱크가 미국에서 10년 이상의 이용실적이 있고 국내에서도 누유사고가 보고된 적이 없다는 점 등 안전성이 높다는 것이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주요 요인이 되었다.

또, 세차기는 위험물 규제에 관한 규제(省省 제25조)에서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세차중 주유를 방지하기 위해 화재예방상 고정 주유시설과의 거리(고정주유시설에 따라 4m 이상에서 최장 6m)는 필요하지만, 도로경계선과의 거리는 실제 사용상황으로부터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 거리규정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편의점 등의 점포를 병설하는 주유소가 주유소 폐점 후도 점포만 영업하는 경우에는 출입할 수 있는 범위의 제한과 감시 및 시인성 확보에 의한 안전대책을 새롭게 요구하기로 했다.

최종적으로는 주유소내를 '주유구역', '점포', '점포 이외의 건축물', '주차장'으로 구분하고 표시나 체인 등으로 출입금지 구역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점포내의 계산대 등에서 감시해서 고의 방화나 화재를 방지한다. 점포 안에서 볼 때 사각지역이 있는 경우는 TV카메라나 경보기, 비디오카메라에 의한 감시 외에 종업원의 정기순회를 의무화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주유소내의 가연물 정리나 고정주유시설의 전원 차단, 기기 및 주입구에 대한 시건 철거, 위험물 안전 감독

자에 대한 확실한 연락수단 확보도 주유소측의 안전보장책으로 중요시하는 조치 등이라고 보여진다.

〈연료유지신문, 2000. 3.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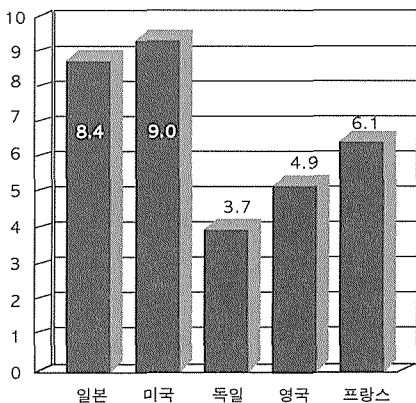
미국, 유럽, 일본의 주유소수 비교

인구 1인당 주유소수는 일본 4.4개에 비해 미국 7.0개, 독일 2.0개, 영국 2.3개, 프랑스는 2.9개였다. 98년 현재 일본의 주유소수는 56,444개이다. 영국의 주유소수는 13,758개, 독일은 16,617개, 프랑스는 17,125개이다. 유럽 주요국에서는 주유소 통폐합이 급속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98년과 20년 전인 78년을 비교하면 하이퍼의 공세가 대단했던 프랑스에서는 24,875개가 감소했다. 영국에서는 14,537개, 독일에서는 13,579개가 감소했다.

한편, 자동차 1만대당 주유소수는 일본이 8.4개이고 미국은 9.0개이다. 이에 비해 유럽에서는 독일이 3.7개, 영국이 4.9개, 프랑스 6.1개로 일본은 독일의 약 2.3배, 영국의 약 1.7배, 프랑스의 약 1.4배였다. 석유정보센터에서는 점포수가 많은 것은 '주유소 뿐만 아니라 일본의 소매업 전반에 걸친 특색'이라고 하면서, 주유소수는 국토규모나 국민성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과다를 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연료유지신문, 2000. 3. 14〉

자동차 1만대당 주유소수(98년)



용어해설

• 핑크메일(Pink mail)

당초에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보내는 해고 통보 메일을 의미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e-메일로 그동안 맺었던 관계를 끝낼때, 협력사와의 관계를 단절할 때, 이는 사람과의 절교를 통보할 때 보내는 메일도 핑크 메일이라고 폭넓게 불린다. 대개 좋지 않은 일을 통보하는 것을 비아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핑크 메일이 그런 사례다. 인수회사가 피인수 회사에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을 그린 메일이라고 말하는 것도 비슷한 사례다. 핑크 메일은 만나서 얼굴을 보며 얘기하기 꺼려로운 내용을 메일로 통보함으로써 보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편리한 점은 있다. 그러나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변명할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받기만 하는 것이어서 인간 관계의 골을 더 깊게 만들기도 한다. 디지털 사회가 보여주는 식막한 단면인 셈이다.

• 디지로그(Digilog)

디지로그(Digilog)란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합성어로 아날로그적 요소들을 기반으로 디지털 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의미한다. 오늘날의 사회를 지칭하는 셈이다. 또 어느 정도 디지털화된 아날로그 세대를 일컫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아무리 디지털 사회로 변화된다고 해도 아날로그적 요소가 사라져서는 안되며 아날로그가 기반이 된 디지털 사회만이 진정한 디지털 사회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도 컴퓨터세대인 신세대 사원들은 컴퓨터를 활용해 빠르고 쉽게 업무를 처리하는 반면 386세대인 40대이상 중견사원들은 컴퓨터 문화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세대간 격차가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숙련된 사회 경험이 있는 아날로그세대와 특특 튀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디지털세대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메워 나갈 때 바람직한 발전을 할 수 있다.